

항장을 마셔도 제대로... 와인 에 빠지다



■ 와인 동호회 '모노폴'

토지의 늪내음 '강렬한 태양' 그리고 달콤한 바람을 머금고 있는 와인. 자연을 담은 와인 향기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 와인 한 잔의 여유에 행복함을 느끼는 와인 동호회 모노폴(http://cafe.daum.net/monopole) 회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올해 1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동호회의 온라인 회원은 200여명. 매주 와인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주고 받는 적극적인 회원은 20여명이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와인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새로운 와인에 대해서 얘기도 주고 받는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에는 한자리에 모여 와인의 향을 음미한다.

은은한 듯 강렬하고,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미묘한 와인은 회원들의 미각과 후각 그리고 시각을 사로잡았다.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모노폴의 임성환(29)회장은 우연히 와인의 매력에 빠졌다가 와인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아예 와인바까지 차렸다.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와인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와인을 더 알고 싶고 느끼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까지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반대도 심했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욕심에 와인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도 접하지 못한 와인의 세계가 더 많다는 임 씨는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매달 서울 등지를 오가며 새로운 와인 정보를 접하고, 매년 한 번씩은 해외에 나가 새로운 와인을 찾고 있다. 풍부한 와인 상식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와인 입문을 돕는 임 씨는 하나의 문화로 와인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동호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저희 동호회는 2차 문화, 원샷 문화를 지양합니다. 모인도 와인으로 시작해 와인으로 끝나는 정말 와인을 위한 동호회입니다.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와인을 느끼고, 배우면서 친목을 쌓는 게 저희 동호회의 특징입니다."

회원 박진수(27)씨는 "같은 와인도 보관 상태와 마시는 상황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며 "같은 알 수 없는 다양함이 와인의 매력이다"고 말한다. 맥주도 즐겨 마시는 박 씨지만 기념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누면 최고의 맛
매주 목요일 20여 회원 모여 음미
좋은 와인에 취하기 위해 해외 원정도
대구 지역과 교류... 와인 대중화 선언

이나 여행갈 때는 와인을 꼭 챙겨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점수를 얻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고가의 와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저렴한 와인부터 시작해 친구들하고 편하게 접해보는 것이 와인인 친숙해 지는 길입니다."

활발한 성격으로 동호회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임 진(여·23)씨는 와인의 향기에 취해 느끼는 편안함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말한다.

"와인은 누구나 편하게 해주는 도수를 가진 술로, 원샷문화에서 느낄 수 없는 부드럽고 편안한 음주 문화를 접하게 해 줄 수 있는 술입니다. 물론 와인도 과음을 하면 취하기도 하지만 남녀 노소가 와인을 들면서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블루베리 주를 마시는 부모님을 따라 처음 과일 주를 맛보았다는 임 씨는 예전과 다른 와인 문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종종 가족들과 와인을 마시곤 했는데 그때는 와인이 불편해 되지 않은 통에 스크루 대신 칼로 병을 따기도 하고, 소주와 맥주잔에 와인을 마신 경험도 있습니다. 와인 문화가 많이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광주에는 정착이 더딘 것 같아서 동호회 활동을 통해 풍부한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미순(여·27)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와인을 접했다가 지금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와인에 대해 공부해나가고 있는 와인 마니아다. "동호회 회원들끼리 추천해주는 와인을 마셔보기도 하고, 함께 기초적인 공부를 하면서 와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고 숨겨진 매력까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취하고 마시는 개념의 술이 아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마시는 와인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시음회와 와인강좌 등을 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노폴 회원들은 와인 문화가 보편화된 대구 지역의 와인 동호회와의 교류도 추진하는 등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나의 넓은 밤'을 뜻하는 클럽 이름 모노폴처럼 임진수(27)회장은 '하나의 넓은 밤'에 뜻하는 하나가 되어 와인의 세계에 빠져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동호회 회장이 말하는 와인 즐기기

모노폴의 임성환(29) 회장은 다양한 와인처럼 사람들의 '맛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와인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강조한다. 임 씨는 와인을 마시는 상황에 따라서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와인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와인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가장 훌륭한 와인을 즐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정관념과 부담감은 NO
와인은 서양 음식에만 어울리며 비싸고 오래된 게 좋은 와인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와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며 우리 음식과 잘 맞는 와인도 있다. 비싼 와인도 마실 시기가 아니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또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의 가치를 하기 힘들다. 고정관념과 부

비싸고 오래된 게 좋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담을 버리고 적절한 가격(마트나 백화점 기준으로 한 병에 2만원 정도)의 와인으로 시작하자.

▲ 와인잔은 필수
와인잔은 와인 고유의 향을 모아주고 허공에 닿는 감촉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지역이나 포도 품종별로 적당하게 설계된 와인잔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와인잔부터 시작해 잔을 모아나가는 것도 즐거움이 된다. 허공에 닿는 감촉을 위해 유리 두께가 얇고, 투명한 와인잔을 선택하도록 한다.

▲ 후각과 미각을 믿어라
와인 애호가들이 잘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등급이나 점수에 연연하는 것이다. 어떠한 등급 체계는 제정되지 오래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서양 사람들의 미각기준에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등급과 점수는 와인을 고르는데 가이드라인이 될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기준은 자신의 후각과 미각, 그리고 '지감'이다.

▲ 시각을 낮춰라
10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한 열레는 지금은 한국시장에서 신대륙 와인 중 가장 높은 위상을 과시하며, 우리와 이웃한 중국도 세계 6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는 와인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움직인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산지로 눈을 돌리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와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자연 愛 !! 살고싶다
오랜기다림의 행복!!

'담양수북'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매우 쾌적한 기후
 - 청정, 맑은, 일사보통 23~25도 온도
 ■ 한창로 및 도로수도, 전기,가스, 열매, 열매
 ■ 부지대 1000~2000평 정도
 - 전담부담금, 계약부담금 등
 ■ 전담부담금 1000만원
 ■ 1000~2000평 정도
 ■ 분양가 100~2000만원 정도
 * 자세한 것
 담양수북사무소 - 동서문로100번

시흥 : (주) 동서문로100번
 시흥 : (주) 시흥개발
 www.dovestate.com
 대표전화 02-251-4000 / 02-383-2346

빛고을 흥어미당

■ 흥어미당 100% 소고기
 ■ 흥어미당 100% 소고기
 ■ 흥어미당 100% 소고기

흥어미당 100% 소고기
 흥어미당 100% 소고기
 흥어미당 100% 소고기

흥어미당 100% 소고기
 흥어미당 100% 소고기
 흥어미당 100% 소고기